

다니엘 44 강

다니엘서 11 장 25 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정녕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그때에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키티스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분별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모를 꾸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음모는 미리 미리 계획한 것을 마치 안그런 것처럼 예고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들이 자기네 이익을 챙기느라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도와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들을 위한 음모가 다 들어 있죠. 그러므로 지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남쪽 왕이 어떻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이들을 이겨내는것, 그당시에 남쪽 왕이면 두번째로 강한 왕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옛날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전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거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같이 방주를 지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방주처럼 이 땅에 오셔서 노아네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 산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라. 이처럼 성경이 이런 뜻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보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 절에 보면 [정녕 그의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음식의 몫을 먹는 자들이 뭔가하면 이 남쪽 나라에 정말 한 밥상에 앉을 정도로 서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반역을 한거죠. 매국노로 있었던 거죠. 그를 멸할 것이란 한때 손을 잡고 머리를 맞땀던 자들이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말해서 남쪽 왕은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실 옛날 파라오 때만 해도 이집트가 엄청난 나라였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프톨레미에 와서는 연약해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열발가락 시대 진흙과 철이 섞인 시대가 되면 가장 약한 거죠? 금으로 부터 은, 놋, 철, 그다음에 철과 흙 점점 약해지니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왕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왕국은 굳건하게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27 절 보니까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남쪽 왕과 적그리스도는 모종의 협약을 맺고 표면상으로는 화친 관계 평화 협정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한다. 주님 오실때까지는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보면 모든 정상들이 모이면 항상 식탁을 두고 연회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단독회담들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일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결국 이러한 교제, 교류의 이면에는 속임수와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신뢰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된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친했다가도 한쪽이 속인 것이 드러나면 또 적이 되는 겁니다. 인류역사 6천동안 계속 됐던 일이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오셔야만 다 끝난다.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이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 지어다. 이게 뭔가하면 예수 믿어라. 이말이에요. 주님 오시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라 그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어떤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를 많이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세상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이 되가지고 그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했다 그러시고 또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외 다른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릴 때 쳐다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거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걸 믿었을 때 살았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믿고 자기 생각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몰라요. 자기 감정이지. 진짜 믿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되는 얘기를 80 이 넘었는데 야 별을 셀수 있으면 말이지 네 자손을 셀수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계산하여 졌다. 너 옳다. 너 죄없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요? 너 조금만 잘못하면 무효야. 그래도 그렇게 애길 안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에게도 약속한다. 야곱에게도,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믿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네요.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받아 들이는 거예요. 옛날 창녀나 세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잖아요. 자기를 알아 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적으로 주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종교적이야. 내가 뭐좀 의로운게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게 아네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수 진짜 믿었어요. 왜? 학교를 안다녀봐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배운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학교가서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교육이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28 절 보니까 **[그때에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큰 재물을 챙겨가지고 돌아 가지요. 이것으니까. 그런데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평화협정을 지킬 뜻은 없지요. 우리 다니엘서 9 장 27 절에서 미리 봤지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증한다. 그런데 주의 중간쯤 되가지고 깨뜨린다고 했지요. 거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예요. 언약을 거스를 것을 미리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있었지요. 처음부터 거짓 평화조약인 것입니다. 오늘날 뉴 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29 절 보니까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남쪽으로 온다는 거는 남쪽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원래부터 먹은 생각대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 절 보니까 **[이는 깃딤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남쪽 왕을 침략했던 적그리스도가 회군했다가 다시 재침공했지만 이전 이후만큼은 못할 것이다. 깃딤의 배들이다.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지중해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죠. 로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31 절 가보니까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이 절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수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 9:27, 8:11 절에서 봤죠? 9 장 27 절 다시한번 찾아 봅시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또 8 장 11 절 봅시다.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들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숫염소로 나왔죠? 여러가지 형태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12 장에 가면 대환란이 나오는 거죠. 8 장 23 절에 보면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또 24 절에 보면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한다. 25 절은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평화조약을 해 놓고서 사실 그게 거짓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드러내 가지고 멸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죠. 25 절에서 그의 지혜를 통하여 이런 말이 있었죠? 지혜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Policy, 정책이라는 뜻이죠. 오늘날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지혜예요. 정책만 잘 발표하면 선출이 되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지혜를 통하여. Policy 를 낸다. 평화조약을 할 때 엄청난 좋은 정책을 말할 거예요. 다 잘살게 해주겠다. 민생을 살피겠다. 경제 민주화. 뭐 똑같은 얘깁니다. 다 잘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평화 협정을 맺는다. 지금까지 나라들 보라 다 엉터리 아니냐? 자기도 사실 똑같은데, 더 한데. 지금 벌어지는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사단의 지혜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혜란 말을 policy 라고 한거예요. 이 킹제임스의 말들이 얼마나 영감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고 해요. 안타까운 거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획책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정책은 또 어떤 외교 정책일 수 있죠? 다른 나라를 속여서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는거겠죠.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케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우리 마태복음 24 장 15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다니엘의 말씀 11: 31 절 말씀을 인용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이 한 말씀이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뭘 세우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대환란은 후삼년반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11 장 말씀은 점점 후삼년 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있었던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대환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다이루어진 거야 하고 끝나 버려요. 분명히 이루어 졌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질거라고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교회에서. 대환란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쳐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wcc는 옛날부터 있었죠.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18 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지금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32 절 보니까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대환란 기간 중간 시점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공공연하게 취하면서 혹독하게 박해를 가해올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와 싸운 두 증인이죠? 또 14 만 4 천도 끝까지 저항하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저항하다가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해 남쪽 에돔 광야에 있는 페트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 가지고 구해낼 거라고 말씀했고 우리 주님도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고 다 지나가죠.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대항했죠. 옛날 한국에 일제 시대 때 끝까지 소수의 사람들은 강하게 대항했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33 절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대환란 기간에 일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지만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혹독한 것이어서 결국은 여러날 동안 후 삼년반동안 대부분이 붕괴될 것이다. 남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우리도 일제 시대때도 그랬고 625 때도 대부분이 붕괴됐잖아요? 독립군이 그렇게 애길해도 안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서도 공산당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안돌아왔죠? 소수만이. 34 절 보니까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대환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이 무너지면 유대인들을 도우려는 무리가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그 도움은 적은 도움이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도움 받는 그런 도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술책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속이려는 무리가 더 많을 것이다. 결국은 도우려 하면서 그들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많죠. 마태복음 25 장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과 염소들을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가라 놓는다. 양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왕국을 이어 받으라. 천년 왕국을 이어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내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지극히 적은 이방인 숫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 갑니다. 유대인들도 적은 숫자가 들어가요. 또 마지막 때 휴거되는 사람들도 적은 숫자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왔으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배겨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마.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의심해요. 여기서 이 설교 들으면 의심하고 저기서 저 설교 들으면 의심하고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는데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35 절 보세요. **[분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 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희게 만들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16 장 15 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가 뭐죠? 어떤 사람이 옷을 지킵니까? 옷이 깨끗할 때는 지키죠? 더러우면 벗어 던지죠? 자기 옷을 지켜서, 이거는 벗지 않는다. 이거는 옷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옷이 깨끗하면 지키죠? 뭐가 물을까봐. 뭐가 묻으면 막 짜증이 나죠? 이게 뭐예요? 뭐가 묻으면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쿠 그러면서. 옷이 희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옷은 뭘니까? 세마포입니다. 주님 만날 때 입는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대환란 시대에는 교회 시대와는 달리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마포 즉 의로운 행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 장 12 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 엄청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의로운 행실을 지킨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유대인에게는 정해진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때가 다 거치기까지는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이레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심판하는,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를 심판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35 절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2 절 봤죠? 예수님이 인용했죠. **[다니엘이 말한 바...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이벤 자, 젓먹이는 자들이 어떻게 도망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 가지고 교회시대에 적용해서 아 교회에 베이비가 많이 있으면 힘들다. 이렇게 얘길 한다고요. 물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교리를 모르고 영적으로만 적용하면 아무것도 아네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은 모두가 다니엘의 70 짜주 후반기 후삼년반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간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거나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경배하기도 할 것이며 또 14 만 4 천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 보호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여 목이 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가가지고 목이 찢리겠습니까? 목은 커녕 돈 몇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 투성인데. 안되죠.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수가 없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 장 후반부에 들어 서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결국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될 일들 적그리스도의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환란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다니엘의 예고를 그대로 말씀하셨으니 읽는 자들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으니 깨닫지 못한 자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말씀을 깨닫고 미리 미리 준비하여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사람도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고 항상 열린 문 안에 거하면서 에녹처럼 주님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